

万葉集의 歌謡 속의 与·及字 研究*

-韓·日 中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안 희 정 **

(e-mail : hjahn@uu.ac.kr)

目 次

1. 들어가는 말	4.2 及 표기 まで(に)의 혼독과 어순 의 특징
2. 선행연구	4.2.1. まで(に)의 혼독
3. 与	4.2.2. まで(に)의 어순
3.1 与 표기와 ‘こす’	4.3 郷歌의 及
3.2 与 표기 ‘ど’의 혼독과 어순	5. 나가는 말
4. 及	
4.1 及 표기와 ‘しく’	

1. 들어가는 말

오로지 한자와 한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한일 고대의 기록은 한일 양국의 언어를 언어구조가 다른 한문(중국어)이라는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 자국 언어와의 뉘앙스의 차이 및 의미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사라는 판단 하에 필자는 허사의 오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중 일본 고대자료에 나타난 ‘与’와 ‘及’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데 현재는 万葉集(만요오슈우)¹⁾를 대상으로 하여 与와 及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万葉集은 歌集으로 歌謡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和文体²⁾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래의 성

* 이 연구결과물은 2009학년도 위덕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 위덕대학교 조교수 상대일본어학

1)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C.K.System’에 따른다. 김용옥(1992)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서울. p.365

2) 일본어 어순으로 이루어진 문체로 우리의 誓記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격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 즉 題詞과 左注 등은 漢文体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万葉集의 경우 오용 용법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체적으로 두 문체와 관련된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검토를 마친 한문체의 경우를 제외한 非漢文体(가요)를 대상으로 与와 及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한 훈독법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

与와 及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 전반에 대하여는 안희정(2010)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본고에서 다룰 내용과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与에 대해서는 柳沢朗(1991)는 ‘こぞ’의 표기와 관련하여 与와 与具의 표기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蜂矢宣朗(1962)는 ‘夢爾所見’의 훈독을 설명하는 중에 ‘こぞ’의 훈독첨가(読み添)로 与자의 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沢瀉久孝(1990)와 小島憲之(1994~1996)는 与가 특수조동사에서 나중에 희구(希求)의 종조사가 된 ‘こぞ’의 표기에 대하여 특히 ‘与具’가 ‘こぞ’의 표기로 사용된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大島信生(1986)는 ‘A与B’의 与가 ‘AとBと’의 ‘と’로 읽을 때 전자의 ‘と’의 표기라는 점과 또한 与가 표기된 句를 어떻게 나누어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권3-449번, 452번, 권4-524번과 564번 가요 4예를 제외하고 나머지 与는 한문 어순이 아니라 일본어 어순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기존 주석서 보다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及에 대해서는 土屋文明(1956)는 훈독법이 주를 이루는데 권11-2461번 가요에 보이는 ‘及恋’의 及을 ‘しく’ 즉 ‘幾度もしきりに’의 뜻으로 파악하였고, 沢瀉久孝(1990)는 권11-2461번 가요에 ‘及恋’의 及을 及이 아니라 後の 誤字로 파악하여 ‘のち’로, 그리고 권2-115번 가요는 代匠記를 근거로 ‘おひしかむ’로 훈독하였으며, 大久保正(1980)는 及이 조사 ‘まで’의 표기로 사용된 것은 柿本人麻呂와 관련된 가요에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기존의 연구는 与 또는 及 표기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는데 이것은 중국어(고대 한문)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적인 용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 관점에서 논한 안희정(2010)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与

歌謡에서의 与는 총 243회가 보이는데, 음차자로 173회(よ·音仮名)³⁾, 훈차자로 6회(と·訓仮名), 훈독자로 48회(と·訓読), 동사로 1회(取与:とりあたふ), 그리고 특수 조동사 こそ로 15회가 사용되었는데, 조동사로 쓰인 与는 또한 훈독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기술의 편의상 따로 제시하기로 한다.

3.1 与 표기와 ‘こそ’

- ①…吾妹子之 形見爾置有 若児乃 乞泣每 取与 物之無者…(2-210)
- ②-1 日位 人可知 今日 如千歳 有与鴨(11-2387)
- ②-2 吾妹子 見偲 奥藻 花開在 我告与(7-1248)

①의 ‘とりあたふ’의 표기를 나타내는 ‘取与’는 안희정(2010)에서 언급했던 복합동사로 쓰인 ‘送与’와 ‘贈与’와 마찬가지로의 경우로 동사 ‘あたふ’로 쓰인 용법이다. 万葉集 가요에서 ‘あたふ’의 훈독은 단 1회(柿本人麻呂)에 불과하다. 1회 밖에 없는 이유로는 ‘주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 모두 복합동사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 단독동사로 쓰이지 않은 점과 詩語로써 ‘あたふ’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②-1의 与의 해당부분 ‘有与鴨’은 ‘ありこそぬかも’⁴⁾로 훈독되어 こそ 의 표기로 쓰인 경우이고, ②-2의 ‘我告与’는 ‘我れに告げこそ’⁵⁾로 훈독되어 こそ로 쓰인 경우이다. 이와 같이 与의 표기자가 특수 조동사 こそ 의 활용형 こそ·こそ·こそ로 쓰인 용례를 모두 제시해 보면,

吾以後 所生人 如我 恋為道 相与勿湯且(あひこそすなゆめ)(11-2375)

…自妻跡 憑有今夜 秋夜之 百夜乃長 有与宿鴨(ありこそぬかも)(4-546)

吾妹子爾 相市乃花波 落不過 今咲有如 有与奴香聞(ありこそぬかも)(10-1973)

日位 人可知 今日 如千歳 有与鴨(ありこそぬかも)(11-2387)

如是為乍 遊飲与 草木尚 春者生管 秋者落去(遊び飲みこそ) (6-995)

- 3) 3-388 伊与爾廻之(伊予に廻らし), 9-1714 与杼壳類与杼爾(淀める淀に), 14-3448 伎美我与母賀母(君が代もかも), 17-4003 与呂豆余爾(万代に), 20-4408 与能比等奈礼婆(世の人なれば)
- 4) ‘ありこそぬかも’의 표기는 모두 총 8회 보이는데 こそ 의 표기는 상기 예와 같이 与가 쓰인 경우가 3회, 有巨勢濃香問(2-119)·阿利己世奴加毛(5-816)·有巨勢奴香聞(6-1025)·有許世奴香裳(8-1616)와 같이 음차자로 4회, 그리고 有得鴨(10-2092)와 같이 ‘得’이 쓰인 경우가 1회이다.
- 5) 조동사 こそ 의 명령형의 古形으로 上代에만 쓰였고, 중조사로는 奈良時代に 동사의 연용형에 붙어 희망을 나타내는 ‘~してほしい, ~しておくれ’의 의미를 나타낸다.

思子之 衣將摺爾 爾保比与 嶋之榛原 秋不立友(にほひこそ) (10-1965)
 人見而 言害目不為 夢谷 不止見与 我恋將息(やまず見えこそ) (12-2958)
 現者 言絶有 夢谷 嗣而所見与 直相左右二(継ぎて見えこそ) (12-2959)
 吾妹子 見偲 奥藻 花開在 我告与(我れに告げこそ) (7-1248)
 天漢 安渡丹 船浮而 秋立待等 妹告与具(妹に告げこそ) (10-2000)
 黒玉 宵霧隱 遠軻 妹伝 速告与(早く告げこそ) (10-2008)
 里遠 眷浦經 真鏡 床重不去 夢所見与(夢に見えこそ) (11-2501)
 我心 等望使念 新夜 一夜不落 夢見与(夢に見えこそ) (12-2842)
 現 直不相 夢谷 相見与 我恋国(逢ふと見えこそ) (12-2850)
 志貴嶋 倭国者 事靈之 所佐国叙 真福在与具(ま幸くありこそ) (13-3254)

와 같이 こそ가 1회, こそ가 3회, こそ가 11회로 총 15회 보인다. 그런데 총 15회 중 무려 9회가 柿本人麻呂歌集(이하 歌集)에 보이는데, 또한 こそ가 1회, こそ가 1회, こそ가 7회와 같이 활용형이 모두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해당부분의 표기를 보면 ‘相与, 有与, 告与, 見与, 在与’ 등으로 모두 ‘동사+与’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와 같이 与의 표기자가 조동사 こそ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대 중국어에서 与는 개사 및 연사로 쓰이는 용법과 동사로 쓰인다. 예를 들면 개사 용법의 경우는

曾子曰：「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伝不習乎？」

《論語 學而第四》

爲人君，止於仁；爲人臣，止於敬；爲人子，止於孝；爲人父，止於慈；與國人交，止於信。《大學 第三章》

와 같이 ‘与朋友交’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与國人交’는 ‘나라 사람들과 사귀는데 있어서’는 의미로 与는 ‘A가 주체가 되어 B와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A+with+B’의 형식으로 쓰인 개사의 용법이다. 다음으로 연사 용법의 경우는

元禮問曰：「君與僕有何親？」對曰：「昔先君仲尼，與君先人伯陽，有師資之尊；是僕與君奕世爲通好也。」《世說新語 言語第二》

子曰：「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貧與賤，是人之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論語 里仁第四》

와 같이 ‘君与僕·僕与君’은 ‘그대와 나·나와 그대’, ‘富与貴·貧与賤’은 ‘부와 귀·빈과 천’의 의미로 与는 ‘A와 B가 동등한 주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A+and+B’의 형식으로 쓰인 연사의 용법이다. 마지막으로 동사 용법의 경우는

子禽問於子貢曰：「夫子至於是邦也，必聞其政，求之與？抑與之與？」

《論語 學而第十》

公於是獨往食，輒含飯箸兩頰邊，還吐與二兒。《世說新語 德行第一》

因令人請地於韓。韓康子欲勿與，段規諫曰：“不可不與也。《韓非子 十過第十》

我持白璧一双，欲獻項王，玉斗一双，欲與亞父。《史記 項羽本紀》

와 같이 ‘抑与之与’는 ‘求之与’와 대구 관계로 동사 ‘求(요구하다)’에 대하여 동사 ‘与(주다)’로 쓰였으며, ‘与二兒’는 ‘두 아이에게 주다’의 의미, ‘欲勿与·不可不与’는 ‘주지 않으려 하다·주지 않을 수 없다’의 의미로 ‘주다’의 의미로, ‘欲獻·欲与’는 ‘獻’에 대하여 ‘与’가 동사로 쓰인 용법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어에서의 与는 조동사로써의 용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위의 예 중 ‘欲勿与·欲獻·欲与’를 보면 与·獻이 본동사로 쓰였고 欲은 조동사⁶⁾로 쓰였다. 즉 与는 조동사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与가 특수 조동사 こそ 의 표기로 쓰인 용법은 고대 중국어에 없는 용법이므로 일본어적인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가요를 보기로 하자.

妹恋 不寐朝 吹風 妹經者 吾与經(12-2858)

이 가요는 여러 주석서에서 ‘わにもふれこそ(塙書房·小学館万葉集), 我れさへに触れ(増訂万葉集全註·岩波万葉集), わともふれなむ(新校万葉集), われとふれなむ(萬葉集<鶴久>·萬葉集注釋<沢瀉久孝>·萬葉集私注<土屋文明>)’와 같이 こそ·さへ·とも·と로 다양하게 혼동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こそ로 혼동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간단히 살펴보고 자세한 것은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하겠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こそ의 표기에 与가 사용된 용례를 해당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相与勿湯目(あひこそなゆめ) (11-2375)

6) 현대 중국어에서의 조동사는 ‘会, 要, 可, 欲, 想’ 등의 자들이 담당한다. 몇 예를 들면 ‘동사: 昨天没有会着他。/ 这本词典我还要呢, 那本我不要了, 你拿去吧。; 조동사: 他不但会骑车, 也会开车。/ 我有话要对他讲.’ 과 같다.

有与宿鴨(ありこせぬかも) (4-0546)(10-1973)(11-2387)
 遊飲与(遊び飲みこそ) (6-995)
 爾保比与(にほひこそ) (10-1965)
 不止見与(やまず見えこそ) (12-2958)(12-2959)(11-2501)(12-2842)(12-2850)
 我告与(我れに告げこそ) (7-1248)(10-2000)(10-2008)
 真福在与具(ま幸くありこそ) (13-3254)

이들 예문을 살펴보면, ‘相ひこす:1회, 有りこせ:3회, 飲みこそ:1회, にほひこそ:1회, 見えこそ:5회, 告げこそ:3회, 在りこそ:1회’와 같이 모두 ‘동사 연용형+与’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こそ 의 표기로 쓰인 与 의 15회 모두가 일본어 어순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吾与経의 경우는 ‘与+동사 연용형’의 형식을 취하여 유일하게 한문 어순을 보인다는 점과 ‘わにもふれこそ’로 혼독할 경우, ‘조동사(与)+본동사(経)’로 인식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대 중국어에서는 与에 조동사 용법이 없다는 점에서 ‘こそ’로 읽는 혼독을 따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이 가요의 경우는 제2구의 ‘不寐’의 ‘不’은 언제나 한문 어순을 취하므로 제외하면 ‘妹に恋ひ 寐ねぬ朝に 吹風は妹にし経れば’와 같이 제1구에서 제4구까지 완벽하게 일본어 어순으로 표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독 제5구만을 이례적으로 한문 어순으로 읽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与의 분석을 통하여 ‘こそ·さへ·とも·と’ 등으로 다양하게 혼독되고 있는 12-2858의 표기에 대한 기존의 異読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 与 표기 ‘と’의 혼독과 어순

‘と’의 표기는 총 54회가 보이는데 혼차자 용법으로 보이는 용례가 6회, 訓読 용법으로 보이는 용례가 48회 보인다.

먼저 혼차자로 사용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60	榜与雖思	漕がむと思へど	鴨足人
3-443	繼往物与	継ぎ行くものと	大伴三中
3-443	間幸座与	ま幸くいませと	大伴三中
3-443	名津匠来与	なづさひ来むと	大伴三中
4-642	懸而縁与	懸けて寄せむと	湯原王
4-686	過与	過ぎぬると	坂上郎女

6회 모두 ‘~と思ふ(642번은 思ふ가 생략된 것임;吾哉然念)·~と語る(母父爾 妻爾子等爾 語而)·~と乞ふ(天地乃 神祇乞禱)·~と待つ(立居而 待監人者)’와 같이 조사 ‘と’ 뒤에 용언을 수반하여 인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고, 与의 어순은 모두 일본어 어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と’가 인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 구조상 한문 어순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문 어순이라고 한다면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와 같은 요소가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조사 ‘と’를 생략하거나, 위의 예와 같이 나타내려고 할 경우에는 ‘と’ 자체가 일본어적인 요소이므로 인용하는 내용 뒤에 표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혼독으로 사용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人不榜 有雲知之 潜為 鴛与高部共 船上住(3-258)
 ④ 与妹来之 敏馬能崎乎 還左爾 独之見者 涕具末之毛(3-449)

鴨足人の 노래인 ③의 ‘鴛与高部共’은 ‘鴛鴦(をし)+と+高部(たかべ)+と’로, 旅人の 노래인 ④의 ‘与妹来之’는 ‘妹+と+来し’로 읽어 与가 ‘と’의 訓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③의 ‘鴛与高部共’의 경우는 ‘鴛鴦と高部’와 같이 일본어 어순⁷⁾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④의 ‘与妹来之’의 경우는 ‘妹と来し’와 같이 한문 어순⁸⁾으로 표기 되어 있다.

위에서 제시한 혼차자로 쓰인 용법은 6회 모두 일본어 어순 표기를 취하고 있으며, 혼독으로 쓰인 용법 48회는 한문 어순이 4회 보이고 있으나, 44회가 일본어 어순 표기를 취하고 있다.⁹⁾

7) 총 44회가 보이는데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4	耳梨山与	耳成山と	中大兄(天智天皇)
1-65	弟日娘与	弟日娘女と	長皇子
2-176	天地与	天地と	舍人
2-196	君与时時	君と時々	柿本人麻呂
2-210	吾妹子与	我妹子と	柿本人麻呂
2-213	吾妹子与	我妹子と	柿本人麻呂
2-220	日月与共	日月とともに	柿本人麻呂
3-258	鴛与高部共	鴛鴦とたかべと	鴨足人

8) 총 4회가 보이는데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49	与妹来之	妹と来し	大伴旅人
3-452	与妹為而	妹として	大伴旅人
4-524	与妹不宿者	妹とし寝ねば	藤原麻呂
4-564	与孰可宿良牟	誰れとか寝らむ	坂上郎女

9) 어순 분류는 句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大島信生

다음은 권13의 작자미상(作者不明)의 노래로, 長歌의 거의 마지막 구에 혼독으로 쓰인 与가 보이는데,

八隅知之 和期大皇 高照 … (中略) … 百礪城之 大宮人者 天地与日月共
万代爾母我 (13-3234)

해당부분의 주석서의 혼독방식을 보면, ‘天地 与日月共’에 대한 혼독이 萬葉集注釋에서는 ‘天地 日月とともに(あめつち ひつきとともに)’인 반면, 岩波萬葉集에서는 ‘あめつちと ひつきとともに’로 ‘と’가 혼독첨가되어 있으며 ‘天地与 日月共’과 같이 与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여 구가 나뉘어져 있다. 언뜻보면 이것은 단순히 異讀이 존재하는 정도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양상은 与표기의 혼독에 따라 어순과 구의 자수(字数)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萬葉集注釋의 경우 前句는 4음절(엄격하게 말하면 ‘あ’에 의해 3.5음절)이므로 음절수가 현저히 부족(字不足)함에도 불구하고 与를 後句의 句頭に 위치시키는 혼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혼독과 관련하여 大島信生(198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혼독법에 두 가지 설이 있다.

(a)アメツチ ヒツキトモニ 全釈·全註釈(旧版·増訂版)·注釈·古典集成

(b)アメツチト ヒツキトモニ 旧訓·定本·古典大系·塙書房本·桜楓社本·古典全集

(a)설은 与가 ‘天地(アメツチ) 与₂日月₁共(ヒツキトモニ)’와 같이 7音句의 句頭に 오며¹⁰⁾, (b)설은 ‘天地与(アメツチト) 日月共(ヒツキトモニ)’와 같이 5音句의 句末에 与가 오는 경우와 ‘天地(アメツチト) 与₂日月₁共(ヒツキトモニ)’와 같이 7音句의 句頭に 오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에 의하면 2-220이 ‘天地日月与共’인데 대해 13-3234는 ‘天地与日月共’으로 与의 위치가 다른데 이 차이는 혼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220이 ‘天地日月与共(アメツチ ヒツキトモニ)’로 与가 일본어 어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3-3234의 ‘天地与日月共’의 与도 일본어 어순대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古典大系の ‘天地与(アメツチト) 日月共(ヒツキトモニ)’로 보는 설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필자는 大島信生の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大島信生の 경우 天地와 与의 예

(1986)에 의한다.

10) 全釈は ‘与’의字は下につけて、ヒツキとなるのであらう。上につけてアメツチトと訓む説はおもしろくない。卷二に天地日月与共(アメツチ ヒツキトモニ)(220)、卷十九に天地日月等登聞仁(アメツチ ヒツキトモニ)(4254)とある。この語例に従ふべく、この用字法に囚はれてはいけない’とある。(大島信生 재인용)

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 3예만을 제시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万葉集에 보이는 天地와 与의 예를 모두 검토하여 그의 설을 보완하고자 한다.

<표 1>

가요 번호	원문	岩波万葉集	小学館万葉集	万葉集注积
2-176	天地与共将終登	天地与 共将終登	天地与 共将終登	天地与 共将終登
2-220	天地日月与共	天地 日月与共	天地 日月与共	天地 日月与共
3-315	天地与長久	天地与 長久	天地与 長久	天地与 長久
3-478	天地与弥遠長爾	天地与 弥遠長爾	天地与 弥遠長爾	天地与 弥遠長爾
4-578	天地与共久住波牟等念而有師家之庭羽裳	天地与 共久住波牟等念而有師家之庭羽裳	天地与 共久住波牟等念而有師家之庭羽裳	天地与 共久住波牟等念而有師家之庭羽裳
13-3234	天地与日月共	天地与 日月共	天地 与二日月一共	天地 与日月共
19-4254	天地日月等登聞仁	天地 日月等登聞仁	天地 日月等登聞仁	天地 日月等登聞仁
19-4273	天地与相左可延牟等大宮乎都可倍麻都礼婆貴久宇礼之伎	天地与 相左可延牟等大宮乎都可倍麻都礼婆貴久宇礼之伎	天地与 相左可延牟等大宮乎都可倍麻都礼婆貴久宇礼之伎	天地与 相左可延牟等大宮乎都可倍麻都礼婆貴久宇礼之伎
19-4275	天地与久万弓爾万代爾都可倍麻都良牟黑酒白酒乎	天地与 久万弓爾万代爾都可倍麻都良牟黑酒白酒乎	天地与 久万弓爾万代爾都可倍麻都良牟黑酒白酒乎	天地与 久万弓爾万代爾都可倍麻都良牟黑酒白酒乎

<표 1>과 같이 与와 관계된 ‘あめつち’는 모두 天地로 표기되어 총 9예가 보이는데,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176·578과 같이 부사 ‘ともに(共)’가 사용됨으로써 与와 구가 나누어지고, 둘째, 315·478·4275는 형용사류(長·遠·久)가 음으로써 与와 구가 분리되고, 셋째, 4273의 ‘相左可延牟等’은 相을 빼면 모두 음차자로 표기되었는데, 인용을 나타내는 ‘と’의 표기로 음차자 등이 이미 존재하므로 与가 인용으로 중복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与가 제2구의 인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용의 ‘と’는 일본어 어순이므로 한문 어순인 与가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제2구가 6.5음절수이므로 与가 제1구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주석서마다 구의 분리에 차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3234로 넷째의 경우이다. 여기에는 220과 4254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20과 3234는 与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서 220은 제2구가 ‘ひつきととむに’로 읽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与가 共 앞에 쓰인 표기인데 이것은 또한 4254의 ‘日月’ ‘等登聞仁’이 ‘等=与’, ‘登聞仁=共’으로 대응 관계에 있으므로 220의 혼독이 명백하다.

그런데 3234는 제2구 첫음절로 与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あめつちと’의 ‘と’표기로 사용된 与가 天地와 결합하는 용례는 모두 6예인데, 与天地의 예는 없고, 모두가 天地与로만 나타난다. 즉 일본어 어순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あめつち’가 万葉集 가요에서 총 62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天地로 표기된 경우는 52예가 보이는데 뒤에 조사 ‘も・の・と・に・は・を’를 동반하고 있다. ‘の・は’ 등은 원래 한문 어순에서도 天地+‘之・者’와 같이 天地뒤에 오지만, 특히 ‘に’의 표기로는 ‘在·於·于’와 같은 자가 쓰이면 ‘在·於·于+天地’와 같이 어순이 바뀌게 되는데 ‘あめつちに’의 경우도 비록 7예로 무표기인 11-2354·13-3329를 제외한 5예 모두가 ‘天地+余(3-420·12-287 5·19-4272)·天地+丹(13-3258)·天地+二(13-3276)’와 같이 음차자를 사용하여 일본어 어순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백하게 혼독으로 쓰인 경우 한문 어순인 4예를 제외한 43예가 모두 일본어 어순을 취하고 있으므로, 3234의 1예만을 예외적인 어순으로 처리할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あめつちと’의 ‘と’표기로 天地와 함께 사용된 与 이외의 표기를 보면 음차자로 ‘天地等 別之時從(10-2005)·天地等 登毛尔母我毛等(15-3691)’과 혼차자로 ‘天地跡 別之時從(10-2092)’이 있는데, 특히 ‘別’과 함께 쓰인 2005·2092의 예는 동사 別の 특성상 만일 与로 표기 되었다면 ‘与天地 別~’과 같이 표기될 것인데 与를 사용하지 않고 음차자와 혼차자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일본어 어순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及

歌謡에서의 及은 총 43회가 보이는데, 조사로 32회(まで·までに), 혼차자와 혼독으로 10회(しく·じく), 동사로 1회(いたる)가 사용되었다.

4.1 及 표기와 ‘しく’

及은 ‘しく’의 표기로는 혼독이 4예, 혼차자가 4예(‘しくに’포함), ‘じく’의 표기로 1예가 보였다.

- ① 遺居而 恋管不有者 追及武 道之阿廻爾 標結吾勢(2-115)
 (後れ居て恋ひつつあらずは追ひ及かむ道の隈廻に標結へ我が背)
 ② 今日爾 何如將及 筑波嶺 昔人之 将来其日毛(9-1754)
 (今日の日にいかにかしかむ筑波嶺に昔の人の来けむその日毛)
 ③ 吾背子爾 吾恋良久者 夏草之 刈除十方 生及如(11-2769)
 (我が背子に我が恋ふらくは夏草の刈り除くれども生ひしくごとし)

①의 ‘追及武’는 ‘追ふ’와 ‘しく’의 복합어로 ‘追ひ及かむ’로 혼독되어 ‘追いつく·到りつく’의 의미로 쓰였다. ②의 ‘何如將及’은 ‘いかにかしかむ’로 혼독되어 ‘及ぶ·肩をならべる·匹敵する’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①과 ②는 혼독으로 쓰인 용법이다. 그리고 ③의 ‘生ひしくごとし’는 혼차자로 동사 연용형 뒤에 와서 ‘しきりに~する’의 의미로 쓰였다. しく에는 (1)及く : 追いつく·及ぶ(匹敵する), (2)頻く : しきりに~する, (3)布く·敷く·領く·籍く : 治める·広く散らばす·物を平らにのべ広げる’와 같이 세 가지의 어휘가 동음이의어로 존재하는데, (1)의 의미로 쓰인 것이 혼독의 及이며, (2)와 (3)의 의미로 쓰인 것은 혼차자의 及이다.¹¹⁾ ①과 ②는 (1)에, ③은 (2)에 해당된다. 그리고 19-4187에 보이는 ‘及及爾’와 11-2552에 보이는 ‘千遍敷及’은 부사 ‘しく’가 반복된 ‘しくしくに’의 표기이다. 전자는 及이 2회 반복되어 있고, 후자는 ‘に’의 혼독첨가가 보이는데 주석서에 따라 ‘ちへにしくしく’ 혹은 ‘ちへしくしくに’ 혹은 ‘ちたひしくしく’로 다양하게 읽고 있다.

그리고 ‘しく’의 탁음 표기인 ‘じく’가 1예 보인다. 예를 제시해 보면,

- … 時及能 香久乃菓子乎 可之古久母 能許之多麻敞礼 …(18-4111)
 (時じくの かくの木の実を 畏くも 残したまへれ)

와 같이 형용사 ‘とぢじ’의 연용형 ‘とぢじく’의 ‘じく’의 표기로 及이 사용되었다.¹²⁾ ‘時じくの’의 표기는 小学館万葉集에 ‘時士久能’, 岩波万葉集에 ‘時支能’, 万葉集<鶴久>에 ‘時及能’, 그 밖의 주석서에 ‘とぢじき(支)’로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이 청음인 ‘しく’의 표기로 쓰이는 及이 탁음인 ‘じく’의 표기로 쓰인 것은 이 예 뿐이다. 물론 万葉集의 시기 구분에 의하면 제4기¹³⁾에 사용된 예이기 때문에 청탁음의 혼용은 두드러진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자음 즉 음차자의 경우 唐代北方音에서 濁音清化 현상이 일어난 것을 반영시킨

11) 그밖의 (1)의 예로는 尚不及家里(6-960)·妹爾將及哉(9-1807), (2)의 예로는 来及靄當(4-499)가 있다.
 12) 형용사 어미 じ로 쓰이는 어휘로는 ‘犬じ·家じ·鵜じ·馬じ·同じ·母じ·おやじ·鹿子じ·畏じ·鴨じ·鹿猪じ·時じ·床じ·鳥じ·雪じ·我じ·男じ(『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編-』1983:346)’가 있는데, 청탁 혼용 표기로는 じ의 연체형 じきが ‘…国見為 築羽乃山矣 冬木成 時敷時跡 不見而往者 益而恋石見…(国見する 筑波の山を 冬こもり 時じき時と 見ずて行かば まして恋しみ 3-382)’와 같이 1예 보인다.
 13) 沢瀉久孝 森本治吉(1976)에 의하면 ‘第1期 壬申の乱平定(672)まで / 第2期 奈良遷都(710)まで / 第3期 天平5年(733)まで / 第4期 天平宝字3年正月(759)まで’와 같다.

결과로 한자음의 문제이지 훈차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유어를 청탁 혼용으로 쓴 것은 大伴家持의 표기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데 大伴家持의 음차자의 청탁 혼용은 흔히 볼 수 있는 표기법이다.

4.2 及 표기 まで(に)의 혼독과 어순의 특징

4.2.1. まで(に)의 혼독

‘まで(に)’로 쓰인 及의 예를 일부 제시하면,

- ④玉緒之 写意哉 年月乃 行易及 妹爾不逢将有(11-2792)
- ⑤梓弓 引津邊有 莫告藻之 花咲及二 不会君蠢(10-1930)
- ⑥夕星毛 往来天道 及何時鹿 仰而将待 月人<壯>(10-2010)
- ⑦夜不寐 安不有 白細布 衣不脱 及直相(12-2846)
- ⑧天漢 已向立而 恋等爾 事谷将告 嬾言及者(10-2011)

와 같이 ‘まで(に)’로 혼독하고 있는 예가 총 32예 보이는데, 이것은 及의 전체 예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④~⑧의 해당부분 ‘行きかはるまで·花咲くまでに·いつまでか·直に逢ふまでに·妻と言ふまでは’를 보면 알 수 있듯이 及은 ‘まで(に)’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로 조사 용법으로 쓰였다.

及은 万葉集 한문체(비가요)의 18예 중 개사는 단 1예에 불과하였고, 日本書紀와 三国史記에서도 개사로는 각각 3예씩만 쓰여 매우 적게 쓰였으며,¹⁴⁾ 고대중국문헌에서도 及의 개사 용법은 与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及은 주로 연사와 동사 용법으로 쓰인다.

고대 중국어에서 及의 동사 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二世使人讓邯，邯恐，使長史欣請事。趙高弗見，又弗信。欣恐，亡去，高使人捕追不及。《史記 秦始皇本紀》

棘子成曰：「君子質而已矣，何以文爲？」子貢曰：「惜乎，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論語 顏淵第十二》

師冕見。及階，子曰：「階也！」及席，子曰：「席也！」皆坐，子告之曰：「某在斯！某在斯！」《論語 衛靈公第十五》

禹子啓賢，天下屬意焉。及禹崩，雖授益，益之佐禹日淺，天下未洽。《史記 夏本紀》

14) 安熙貞(2000)에 의하면 日本書紀에서는 부사에 의한 유형 2예, 동사의 종류에 의한 유형 1예, 三国史記에서는 동사의 종류에 의한 유형 3예가 있다.

湯曰：“嘻，盡之矣!”乃去其三面，祝曰：“欲左，左。欲右，右。不用命，乃入吾網。”諸侯聞之，曰：“湯德至矣，及禽獸。”《史記 殷本紀》

각 예문의 해당부분을 간략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趙高는 사람을 시켜 뒤 쫓게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였다(쫓아가는데 이르지 못하다)’의 의미로 ‘およぶ(追いつく)’의 의미로 쓰였으며, 두 번째는 ‘네필이 끄는 마차로도 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의 의미로 ‘およぶ(能力が追いつく)’의 의미로 쓰였다. 세 번째는 ‘계단 앞에 이르자 공자께서 “계단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리에 이르자 “자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의 의미로 ‘およぶ(その場所まで届く)’의 의미로 쓰였으며, 네 번째는 ‘우임금이 죽고나서 비록 익(益)이 왕위를 전수받았으나, 익이 우임금을 보좌한 것은 일천하였기에 천하가 만족하지 못하였다’의 의미로 ‘およぶ(ある期限にまにあう)’의 의미로 쓰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탕왕의 덕이 지극함이 금수에 이른다고 했다’의 의미로 ‘およぼす(そこまで物事の範囲を広げる)’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같이 중국어에서의 及은 동사의 용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된다.¹⁵⁾

따라서 及이 万葉集 가요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이 조사로 쓰이고 있는 것은 及의 본래 쓰임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격조사 ‘まで(に)’의 용법은 고대 중국어의 及에는 없는 용법이다. 고대 중국어에서 及은 의미는 일본어의 ‘まで’와 유사하지만, 어디까지나 의미의 유사이지 문법에서의 품사는 ‘まで’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일본어 특히 万葉集에서 ‘まで’로 수용한 것은 일본어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及이 주로 개사와 동사로 쓰인 고대 중국어의 용법에 비추어 보면, 及의 조사 용법은 일본 고유어 격조사 ‘まで(に)’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4.2.2. まで(に)의 어순

‘まで(に)’로 쓰인 예문들의 어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당 예들을 모두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가요번호	원문	해독	まで	작자	비고
7-1330	弓束纏及	弓束卷くまで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0-1861	光及爾	照るまでに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0-1930	花咲及二	花咲くまでに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5) 동사 용법은 한문체(비가요)에서는 18예 중 7예가 보이고 가요에서는 단 1예만이 보인다.

10-1958	常爾冬及	常に冬まで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0-2011	嬾言及者	妻と言ふまでは	まで	柿本人麻呂歌集	일본어 어순
10-2097	来喧牟日及	来鳴かむ日まで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0-2100	丹穂経及	にほふまで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0-2286	実成及丹	実になるまでに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0-2296	黄変及	もみつまで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1-2656	幾世及将有	幾代まであらむ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1-2792	行易及	行きかはるまで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12-2919	直相及者	直に逢ふまでは	まで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3-261	益及常世	いや常世まで	まで	柿本人麻呂	한문 어순
9-1740	及七日	七日まで	まで	高橋虫麻呂歌集	한문 어순
9-1747	及還来	帰り来るまで	まで	高橋虫麻呂歌集	한문 어순
10-2009	及雲隱	雲隱るまで	まで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0-2010	及何時鹿	いつまでか	まで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0-2244	乃而及苟	かくて刈るまで	まで	작자미상	한문 어순
10-2245	及何時可	いつまでか	まで	작자미상	한문 어순
10-2261	及何時	いつまでか	まで	작자미상	한문 어순
11-2398	及世定	世までと定め	まで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1-2400	及失念	失するまで思ふ	まで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가요번호	원문	해독	までに	작자	비고
11-2538	緒爾成及	緒になるまでに	までに	작자미상	일본어 어순
2-196	及万代	万代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	한문 어순
7-1279	及採	摘む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9-1702	及乏	すべなき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1-2413	及正逢	直に逢ふ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1-2452	及直相	直に逢ふ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1-2461	及恋	恋ほしき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2-2846	及直相	直に逢ふ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2-2854	及相日	逢はむ日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12-3129	及見	見るまでに	までに	柿本人麻呂歌集	한문 어순

위 예문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일본어 어순		한문 어순		
まで(22예)	12 예	柿本人麻呂歌集:1 예	10 예	柿本人麻呂:1예	권3(1예) 권7(1예) 권9(2예) 권10(13예) 권11(4예) 권12(1예)	
		작자미상:11예		柿本人麻呂歌集:4예		
				高橋虫麻呂歌集:2예		
				작자미상:3예		
までに(10예)	1예	작자미상:1예	9 예	柿本人麻呂:1예 柿本人麻呂歌集:8예	권2(1예) 권7(1예) 권9(1예) 권11(4예) 권12(3예)	
합계	13 예	작자 있음:1예	19 예	작자 있음:16예	32예	
		작자미상:12예		작자미상:3예		

이상의 まで(に)의 어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순이 일본어 어순과 한문 어순이 병행되어 있는데, 일본어 어순으로 되어 있는 예는 1예를 제외하고 12예 모두 작자를 알 수 없는 작자미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문 어순은 84.2%가 柿本人麻呂를 비롯한 작자가 있는 예로 高橋虫麻呂歌集의 2예를 제외하면 모두 柿本人麻呂와 柿本人麻呂歌集의 예라는 점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대로 略体로 대표되는 柿本人麻呂의 특징과도 부합된다. 세 번째는 ‘まで’는 22예 중 18예가 권10~12에, ‘までに’는 10예 중 7예가 권11~12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まで(に)의 어순의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특징의 이유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상 줄이기로 한다.

4.3 郷歌의 及

고대한국 가요 자료인 향가에서는 悼二將歌에 及이 다음과 같이 두 예 보인다.

제2구 際天乙及昆

제5구 職麻又欲望彌阿里刺及彼

이에 대한 김완진(1995:pp.210~214)의 해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구 際天乙及昆

軛字: 又-하늘-및-곤

轉写:궐 하눌 밋곤

현대어역: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제5구 職麻又欲望彌阿里刺及彼

轉字:섯-마-또-려-활잡-아-리-가시-와-더

轉写:섯 맛도려 활자바리 가시와더

현대어역:職分 맡으려 활 잡는이 마음 새로와지기를

제2구의 及은 동사 ‘밋다’의 어간인 ‘밋’¹⁶⁾과 제5구의 及은 ‘刺=가시, 及=와, 彼=더’로 ‘刺及彼’는 ‘가시와더’가 되어 及은 ‘와’의 표기로 쓰여, 전자는 혼독자로 후자는 혼차자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万葉集와 자료의 성격이 같은 향가 중 悼二將歌의 이와 같은 及의 사용법은 적어도 가요에서의 고유어 표기자의 선택에서 두 나라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중국어 及에는 개사와 연사의 용법과 동사(쫓다·능력이 미치다·장소에 도달하다·시간에 이르다·미치다 등) 등의 용법이 있는데, 일본 자료인 万葉集에서는 ‘쫓다·능력이 미치다’의 동사의 용법, 혼독·혼차자의 용법과 일본어적인 용법인 조사 ‘まで’의 표기로 사용된 반면, 한국 자료인 향가에서는 비록 그 예가 2예에 불과하지만 동사 ‘밋다’와 어미 ‘와’의 혼차자 표기로 사용되어 서로 다른 용법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 자료의 부족함에 기인한다고 보면 그 이상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万葉集 가요 내에서는 及은 ‘また’나 ‘と’와 같은 연사의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반면, 향가에서는 혼차자이기는 하지만 어미 ‘와’로 사용된 것은 及의 혼독자인 조사 ‘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 조사 ‘와’의 표기자로 及이 이미 정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대일본어의 표기법에 영향력을 미친 도래인의 표기법의 반영이 적어도 及에 한해서는 조사 ‘와’ 즉 ‘と’와 같은 용법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신증유합:미츨 급, 팽주 천자문:밋 급.

17) 유창균(1996:pp.1103,1113,1121~1122)에 의하면, 제2구의 及昆은 ‘밋곤(양주동) / 밋건(정렬모) / 미치곤(지현영) / 밋곤(김완진) / 미츠곤(유창균)’과 같이 제2구의 及의 혼독은 다양한 어형이 보이기는 하나,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거)니’의 의미로 모두 동사 ‘밋다·미치다’의 용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5구의 及彼可는 ‘그뿐(양주동) / 밑비리(정렬모) / 자피어(지현영) / 가시와더(김완진) / 다못(유창균)’과 같이 양주동은 음 ‘급’을 취해서 ‘그뿐’로 읽었고(음차), 정렬모는 及의 혼 ‘밑’을 취하여 ‘밑비리’로(혼차), 지현영은 ‘刺’의 음을 취해 ‘자피어’로 읽었으며(음차:김완진에 의하면 ‘純正添記’), 유창균은 제5구에 대한 해독자들의 혼독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후반부의 구의 머리에 ‘又, 及, 乃’와 같은 부사어를 둔 것에 주목하여 及을 ‘다못’으로 혼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及을 음차로 읽는 경우, 혼차로 읽는 경우, 부사로 읽는 경우 등 다양한 해독이 존재하지만, 필자가 향가 자료의 해독을 사용할 때는 지금까지 김완진의 해독에 따랐으므로 본고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앞으로 향가 해독의 진전에 따라 필자의 분석도 유동적임을 밝혀둔다.

5.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万葉集의 가요 즉 비한문체(非漢文体)를 대상으로 与와 及의 용법에 대해 고찰하였고, 또한 혼독법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가요에서 与는 총 243회가 보였는데, 음차자로 173회(よ·音仮名), 혼차자로 6회(と·訓仮名), 혼독자로 48회(と·訓誂), 동사로 1회(取与:とりあたふ), 그리고 특수조동사 こそ로 15회가 사용되었고, 及은 총 43회가 보이는데, 조사로 32회(まで·までに), 혼차자와 혼독으로 10회(しく·じく), 동사로 1회(いたる)가 사용되었는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与가 특수 조동사 こそ 표기로 쓰인 용법은 고대 중국어에 없는 용법이므로 일본어적인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2. 권12-2858의 与는 특수 조동사 こそ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모든 与의 혼독과 어순의 검토를 통하여 다양하게 혼독되고 있는 기존의 異誂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3. ‘と’의 표기는 총 54회가 보이는데 혼차자 용법으로 6회, 혼독 용법으로 48회인데, 혼차자의 6회 모두와 혼독의 48회 중 44회가 일본어 어순 표기를 취하고 있다.
4. 与 표기의 혼독에 따라 어순이 달라질 수 있는 13-3234의 ‘天地与日月共’에 대하여 ‘アマツチト ヒツキトモニ’로 혼독하여야 하며, 5音句의 句末에 与가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일본어 어순의 설에 동의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기존의 설을 보완하였다.
5. 향가에서 与의 표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6. 권18-4111의 ‘時及能(ときじくの)’의 경우 清音인 ‘しく’의 표기로 쓰이는 及이 탁음인 ‘じく’의 표기로 쓰인 것은 이 예 뿐인데, 이와 같이 일본 고유어를 청탁 혼용으로 쓴 것은 大伴家持의 표기법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예이다.
7. 격조사 ‘まで(に)’의 용법은 고대 중국어의 及에는 없는 용법으로 이것은 일본 고유어 격조사 ‘まで(に)’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어적인 용법이다.
8. 万葉集 가요에서는 及은 개사 혹은 연사로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与는 개사 혹은 연사로, 及은 격조사 ‘まで(に)’로 분리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9. 한국자료에서 及은 悼二将歌에 동사 표기 1예와 혼차자 표기 1예가 보이는데, 万葉集 가요에서 향가의 혼차자 표기인 조사 ‘와’와 같이 ‘また’나 ‘と’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도래인의 표기법이 及에서는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周生亚(1989)에 의하면 与와 及이 연사로 쓰일 때의 호환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因此, 文献中在许多情况下, [A及B]≠[A与B], “及”和“与”无论在词义上, 还是在用法上都存在一些细微差别。…… 以上诸句中的“及”都是并列连词, 但却不可以换成“与”字。为什么? 因为“及”所连接的并列项在内容上有主从, 如(7)句; 在时间上有先后, 如(8)句; 在空间上有表里远近, 如(9)句; 在程度上有深浅大小, 如(10)(11)句。反过来说, 并列连词“与”就没有这些特点。“与”所连接的两个并列项, 在关系上是完全平等的, 彼此位置即使掉换, 意义上也无大的妨碍。……

즉 及은 주종(主從)관계, 시간의 전후 관계, 공간의 원근 관계와 정도의 대소 관계에 있을 때 与와 호환할 수 없고, 与는 与 전후의 어휘가 완전히 평등 관계에 있으므로 전후 어휘를 서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와 같은 현상이 일본 고대 자료의 표기에서도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차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p.210-216
김원중편(1994) 『허사사전』 현암사 서울 pp.116-120, 504-509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1990) 『現代中韓辭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안희정(2010) 「万葉集의 與·及 표기자 수용과정 연구 -韓·日·中 비교에 의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日本文化學報 第44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207-231
유창균(1996) 『향가비해』 pp.1103, 1113, 1121~1122
허백(1997) 『중국고대어법』 신아사 서울 pp.289-347
- 安熙貞(2000) 「「与」と「及」の用字法の比較研究 -『日本書紀』と『三国史記』を中心に-」 福岡大学大学院論集32-2福岡大学大学院論集刊行委員会 pp.1-17
宇都宮陸男(1987) 「「与」の訓法」 国語国文56-7 京都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研究室 pp.22-40
大久保正(1980) 『万葉集の諸相』 明治書院 東京 pp.238-239
大島信生(1986) 「万葉集「与」の表記について -助詞トの場合-」 万葉123 万葉学会 京都 pp.12-22
沢瀉久孝(1990) 『万葉集注釈』 中央公論社 東京 p.458
沢瀉久孝·森本治吉(1976) 『作者類別年代順万葉集』 新潮社 東京
小島憲之(1994~1996) 『万葉集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小林芳規(1959) 「「及」字の訓読」 言語と文芸1-4 国文学言語と文芸の会上代語辞典編修委員会(1994) 『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 三省堂 東京 pp.27, 346, 801
土屋文明(1956) 『万葉集私注』 筑摩書房 東京 p.196
鶴久·森山隆編(1993) 『万葉集』 桜楓社
蜂矢宣朗(1962) 「仮名表記と読添へ」 『万葉』 第43号 万葉学会 京都pp.38-53
柳沢朗(1991) 「「与」と「与具」-人麻呂歌集コス表記の可能性-」 日本文学40-2 日本文学協会 pp.44-53
- 王力(1982, 1991) 『同源字典』 商务印刷馆出版 北京
徐萧斧(1981) 「古汉语中的“与”和“及”」 『中国语文』 第5期 pp.374-383
周刚(2004) 『连词 与 相关问题』 安徽教育出版社 合肥 pp.156-177
周生亚(1989) 「并列连词“与、及”用法辨析」 『中国语文』 第2期 pp.137-142

要 旨

本稿は、万葉集の和歌、すなわち非漢文体を対象に、「与」と「及」の用法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り、更に訓読法についても検討したものである。和歌の中で「与」は計243回用いられているが、音仮名「よ」の表記として173回、訓仮名「と」の表記として6回、訓読「と」の表記として48回、動詞「取与:とりあたふ」の表記として1回、そして特殊助動詞「こそす」の表記として15回が用いられた。また「及」は計43回用いられているが、助詞「まで・までに」の表記として32回、訓仮名と訓読「しく・じく」の表記として10回、動詞「いたる」の表記として1回が用いられ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1. 「与」が特殊助動詞「こそす」の表記として用いられた用法は、古代中国語にはない用法なので「日本語的な用法」として使われたと考えられる。
2. 和歌で用いられたすべての「与」の訓読と語順の検討を通じて、巻12-2858に見える「与」は、特殊助動詞「こそ」と関係の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更に未だに残存している異読の問題に対し一つの基準が提示できたと言えよう。
3. 「与」は、「と」の表記として計54回(訓仮名6回、訓読48回)使われたが、訓仮名としての6回すべてと訓読としての48回のうち44回が日本語の語順で表記されていた。
4. 「与」の表記の訓読により語順が異なる可能性がある巻13-3234の「天地与日月共」について、「アメツチト ヒツキトモニ」と読むべきであり、更に5音句の句末に「与」が位置すべきであるという日本語語順の説に同意する根拠を提示し既存の説を補った。
5. 郷歌に「与」の表記はない。
6. 巻18-4111の「時及能(ときじくの)」の場合、清音「しく」の表記として用いられる「及」が濁音「じく」の表記に用いられている。濁音「じく」の表記はこの例だけであるが、このように日本の固有語を清濁混用で表記していることは大伴家持の表記法的一端が窺える例であると考えられる。
7. 格助詞「まで(に)」の用法は、古代中国語の「及」にはない用法で、これは日本の固有語の格助詞「まで(に)」に結び付けられていたことから生じた用法であると推定されるので「日本語的な用法」と言えよう。
8. 和歌で「及」は介詞あるいは連詞として使われることがなかった。従って、「与」は介詞あるいは連詞として、「及」は格助詞「まで(に)」として使い分けを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9. 古代韓国語の資料で「及」は「悼二将歌」で動詞として1回、訓仮名として1回が使われたが、訓仮名表記である助詞「斗(日本語の格助詞「と」に当たる)」の用法は、和歌で「また」あるいは「と」として使われていないので少なくとも「及」の表記には渡来人の表記法の影響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万葉集、歌謡、郷歌、与、及、訓読、語順、こす、しく、まで(に)

투 고 : 2010. 8. 31

1차 심사 : 2010. 9. 11

2차 심사 : 2010. 9. 25